

천상병 문학에 나타난 고향

박정선*

|| 차례 ||

1. 머리말
2. 진동(鎭東)과 진북(鎭北)-시원, 혹은 귀천의 지반
3. 마산(馬山)-심미적 도정의 출발점
4. 맺음말

【국문초록】

근대 이후 ‘고향’은 한국문학의 소재로 즐겨 다루어져 왔다. 거기에는 근대 초기부터 시작된 해외 이산,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대규모 실향, 산업화시대부터 본격화된 이농과 도시집중화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 속에서 타향을 떠돌던 많은 작가들이 고향상실감과 향수의 정서를 토로하고, 고향의 이미지와 서사를 생산해 왔다. 그에 따라 한국문학에 나타난 고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학 속의 고향’은 한국문학 연구의 주된 테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천상병은 한국문학사에서 고향을 소재로 한 시와 수필을 비교적 많이 남겨 놓은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천상병은 성장기에 여러 곳을 전전하며 자랐다. 즉 그는 일본 히메지(姫路)(1930~1933), 진동(1933~1938), 일본 다테야마(館山)(1939~1945), 마산(1945~1951), 부산(1951~1953)을 거치며 성장했다. 그는 성장기의 추억이 서린 곳을 모두 고향이라 불렀고, 시와 수필을 통해 향수를 지속적으로 언어화했다. 이 가운데 그가 특별히 그리워했던 고향은 ‘진동 및 진북’과 ‘마산’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상병 문학을 고향과 관련짓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고는 천상병 문학에 나타난 고향의 양상, 의미, 고향의식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했다.

*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천상병에게 진동은 유년기를 보낸 곳이고, 진북은 선대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천상병은 시나 수필에서 진동을 산수가 이름답고, 행복했던 추억이 서린 곳으로 회고했다. 천상병은 1953년부터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타향살이의 신산스러움 속에서 고향의 부모님, 특히 영면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지속적으로 썼다. 고향과 영면한 어머니에 대한 천상병의 그리움은 죽어 어머니 곁에 묻히고픈 염원을 낳았다. 진동과 진북은 그의 시에서 존재론적 기원이나 육신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귀천을 위한 지반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마산은 그가 8.15해방을 맞아 귀국하여 1951년에 마산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던 곳이다. 그는 마산 시절에 책읽기에 몰두했고, 고전음악에 심취했다. 또한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마산의 수려한 경치를 보며 시적 정서와 감각을 키웠고, 당시 마산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시인 김춘수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천상병이 시인의 길을 가게 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마산은 천상병의 인생에서 심미적 도정의 출발점이란 의미를 지닌다. 천상병 문학에는 마산에서의 추억과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두루 나타난다. 천상병의 고향문학은 모두 타향에서의 경제적 곤궁과 불안정한 생활이라는 그의 실존적 조건에서 탄생했다.

주제어 : 천상병, 고향, 기원, 성장기, 추억, 진동, 진북, 마산, 향수

1. 머리말

인간에게 고향은 어떠한 의미를 지닌 곳일까? 우선 고향은 우리가 나고 자란 곳으로서 성장기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다. 또한 어떤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곳이자 죽어 묻히고자 하는 곳이다. 이 같은 인식과 정서는 고향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 타향을 떠도는 인간의 내면에는 향수라는 감정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공간적 제약성이 훨씬 약화된 근대 이후 탈향이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향수는 근대인의 보편적인 감정이 되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근대 초기부터 시작된 해외 이산, 6.25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초래된 대규모의 실향, 산업화시대부터 본격화된 이농과 도시집중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 국민보다 이향의 고통을 우심하게 겪어 왔다. 그런 탓에 고향상실감이나 향수는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근원적 감정이 되었다. 타향에서의 힘겨운 삶은 누구에게나 고향에서의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은, 무엇보다 한국인에게 고향은 존재의 근원이자 영속적 안정의 표상이다. 아울러 향수는 근원 회귀의 갈망이며, 안정에 대한 회구이다. 고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목가적인 농촌과 같이 낭만적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고향이 한국문학의 소재로 즐겨 다루어진 것은 굴곡 많은 우리 근현대의 역사적 조건 때문이다, 실제로 고향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주된 모티프가 되었다. 술한 시인, 소설가들이 타향을 떠돌면서 고향상실감과 향수의 정서를 토로하고, 고향의 이미지와 서사를 생생해 왔다. 따라서 연구자들도 근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고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디아스포라 문학에 표현된 고향을 고찰하는 데까지 연구의 영역을 넓혀 왔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문학에 나타난 고향을 다룬 학술지 논문이 100여 편, 학위 논문이 50여 편에 이르고 있다.¹⁾ 근대문학을 다루는 논문들은 백석, 오장환, 이용악, 윤동주, 정지용, 김유정, 이효석, 이태준의 작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대문학을 다

1) 이 통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고향’을 주제로 하여 검색한 결과이다. 주로 논제에 ‘고향’이 들어가 있고, ‘고향의 형상화’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논문들을 가려 통계를 냈다. 그러나 공간, 장소, 향토 등의 주제로 검색한 논문들 중에서도 고향의 문학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하는 논문들은 통계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다.

루는 논문들의 경우에는 전봉건, 이문구, 김승옥, 이청준을 비롯해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들의 문학에 나타난 고향의 양상, 의미, 고향의식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디아스포라 문학에 나타난 고향을 고찰한 논문들은 중국, 중앙아시아, 미국, 일본 등지에서 산출된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문학 속의 고향’은 한국문학 연구의 주된 테마 중 하나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천상병(1930-1993)은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고향을 소재로 한 시와 수필을 비교적 많이 남겨 놓은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에게도 어린 시절의 고향과 고향에서의 추억은 삶의 갈피갈피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릴 때, 음악을 들을 때, 술을 마실 때, 부모님의 제삿날이나 명절날에 고향은 그의 마음속에 떠올라 그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에 몸부림치게 했다. 천상병의 『오후』²⁾는 그가 23세 되던 해에 부산에서 쓴 시인데, 상황적 계기가 환기하는 향수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어느 고요한 오후의 시간 속에서 그러한 오후가 상기시키는 유년시절의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추억 한 토막을 펼쳐놓고 있다. 천상병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유년시절에 유독 어머니를 많이 따랐다고 한다.³⁾ 그는 대여섯 살 무렵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던 “그 어느 날의 일”을 떠올리고, 그러한 추억에 젖게 하는 “고요한 오후는/ 물과 같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울리는 것이다.”라며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이 작품 이후에도 생의 한 때, 어떤 무엇이

2) 천상병, 『오후』, 『신작품』, 1952. 3; 천상병, 『천상병전집-산문』, 평민사, 1996, pp.46-47. 앞으로 천상병의 시 전집은 『전집-시』로, 산문 전집은 『전집-산문』으로 약칭한다.

3) 천상병, 『그리움』, 『한낮의 별빛을 보았느냐』, 영언, 1994; 『전집-산문』, p.47.

계기가 되어 고향을 회상하며 쓴 시는 그의 작품 활동 시기 전체에 걸쳐 두루 나타나며, 수필의 경우에는 만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고향은 천상병 문학을 낳은 주요한 배경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천상병 문학을 그의 고향과 관련지은 논의는 극히 드물다.⁴⁾ 기존연구가 천상병 시의 서정성이나 정신성, 이미지나 형식적 특징, 그리고 사적 개관 등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천상병 문학에 나타난 고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천상병은 여러 곳을 전전하며 성장기를 보냈다. 즉 그는 일본 히메지(姫路)(1930~1933), 진동(1933~1938), 일본 다테야마(館山)(1939~1945), 마산(1945~1951), 부산(1951~1953)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 성장했다. 그리고 그는 성장기의 추억이 서린 곳을 고향이라 불렀고, 시나 수필 장르를 통해 향수를 지속적으로 언어화했다. 이 가운데서도 그가 특별히 그리워했던 곳은 ‘진동 및 진북’과 ‘마산’이었던 것 같다. 그가 고향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곳이 진동과 진북, 마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진동과 진북, 마산을 중심으로 고향이 천상병의 생애의 어떤 순간에 기억

4) 한정호,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 『지역문학의 이랑과 고랑』, 경진, 2011; 김중호, 「천상병 시에 나타난 원형 심상 연구」, 『어문론집』 35, 중앙어문학회, 2006. 전자는 천상병에 대한 전기적 연구의 일환으로 출생기부터 20대까지를 실증적으로 개관하면서 그의 문학과 고향의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다룬 것이고, 후자는 천상병 시에 나타난 원형적 이미지를 고찰하면서 고향시편을 일부 분석한 것이다.

5) 최근의 연구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경철, 「한국 순수시의 서정성 연구-천상병, 박용래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07; 박남희, 「노장적 사유의 두 가지 모습-천상병과 이성선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7, 한국시학회, 2002; 성낙희, 「천상병 시의 도가적 특성」,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17, 2006; 김중호, 「천상병 시에 나타난 원형 심상 연구」, 『어문론집』 35, 중앙어문학회, 2006; 고봉준, 「귀소(歸巢)의 새/순수의 초상-‘새’와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고영직 엮음, 『천상병 평론』, 답게, 2007; 이민호, 「무위와 소멸의 시학-천상병론」, 김학동 외, 『한국 전후 문예시인 연구』5, 예림기획, 2005.

의 지층에서 떠올랐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양상으로 표상되었는가, 아울러 그 같은 표상화의 원인과 의미는 무엇인가 등을 조명해 보려 한다.

2. 진동(鎭東)과 진북(鎭北) - 시원, 혹은 귀천의 지반

천상병 문학에 나타난 고향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기 전에 우선 그의 고향에 대해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고향을 다룬 그의 문학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상병의 고향은 정확히 어디일까? 천상병은 생전에 시나 수필에서 여러 곳을 고향으로 지칭한 바 있다. 그런 탓에 그의 고향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고향을 규정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보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천상병은 1930년 1월에 일본 히메지(嬉路)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네 살 때까지 살았다. 출생지를 고향으로 보는 일반적 관점을 따른다면, 그의 고향은 히메지가 분명하다. 따라서 그의 고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⁶⁾

그런데 천상병은 자신의 고향이 “경상남도 창원군 진북면”⁷⁾이라고도 했다. 진북은 그의 선대가 살던 곳이며, 조부모와 부모가 묻힌 선산이 있는 곳이다.⁸⁾ 선대가 살다 묻힌 곳도 고향이라 간주하는 한국인의 인식적 관습을 고려한다면, 그가 진북을 고향이라 주장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또한

6) 하지만 히메지(嬉路)는 천상병의 시나 수필 어디를 보아도 출생지로만 서술되어 있다. 아마도 그 자신은 히메지를 고향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7) 천상병, 『천가지변(千哥之辯)』, 『한낮의 별빛을 보았느냐』, 영언, 1994; 『전집-산문』, p.55.

8) 정확히는 ‘진북면 대터리’이다.

그는 “경남 창원군 진동면”⁹⁾을 고향이라 하기도 했다. 진북과 인접해 있는 진동은 천상병의 외가가 있던 곳이다. 천상병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네 살 때인 1933년에 귀선(歸鮮)하여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¹⁰⁾ 약 6년간을 진동에서 자란 셈인데, 그런 만큼 진동은 그에겐 유년 시절의 추억이 가장 많이 서려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진동을 고향이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한편 천상병은 「고향이야기」¹¹⁾라는 시에서 자신의 본 고향이 진동이고, 제2의 고향이 부산이며, 제3의 고향이 일본 다테야마(館山)라고 술회했다. 다테야마는 천상병이 부모를 따라 1939년에 도일(渡日)하여 8.15해방으로 귀국하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던 곳이다. 그는 그곳을 “후지산이 멀리 바라 보이고/ 경치가 아주 좋은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은 그가 6.25전쟁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머물던 곳이었는데, 그는 당시 부산으로 피난 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휴전 직후 학교가 환도하는 1953년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문학에 투신한다. 또한 그는 수필에서 “마산도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살았으니 내 고향이나 다를 게 없다”¹²⁾라거나, “6.25 참사를 고향 마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¹³⁾다고 회상했다. 천상병 일기는 8.15해방 후 귀국하여 마산 오동동에 정착하게 된다. 그는 이때 마산중학교 2학년에 편입한 후 졸업하던 1951년 초까지 마산에 거주했다. 이 시기에 그는 책읽기에 몰두하고 습작시를 쓰면서 시인의 꿈을 키웠다. 이처럼 다테야마, 마산, 부산은 그가 유년

9) 천상병, 「고향사념」,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오상출판사, 1984; 『전집-시』, p.272.

10) _____, 「외할머니 손잡고 걷던 바닷가」, 『월간조선』, 1990. 5; 『전집-산문』, p.25.

11) _____, 「고향이야기」, 『요즘 요즘 요 이쁜 놈!』, 답게, 1991; 『전집-시』, p.372.

12) _____, 「외할머니 손잡고 걷던 바닷가」, 『전집-산문』, p.25.

13) _____, 「우리들 청춘의 묘지」,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강천, 1990; 『전집-산문』, p.21.

기,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한 때를 보낸 곳으로, 그는 이곳들 역시 고향이라 여겼다.

이렇게 본다면, 그의 고향은 딱히 어디라고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에게 고향은 출생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살면서 추억을 쌓은 곳이자 그리움을 환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상병의 고향 개념은 일반적인 차원의 그것에 비해 내포적 의미의 범위가 훨씬 넓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문학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향’은 진동이다.

본 고향인 진동면은
산수가 아름답고
당산이 있는 수려한 곳이다.
바다에 접해 있어서
나는 일찍부터
해수욕을 했고
영 어릴 때는
당산밑 개울가에서
몸을 씻었었다.

-『고향이 이야기』 부분¹⁴⁾

어린 시절 국민학교 2학년까지 살던 고향 진동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뒤에는 산이 푸르고 앞에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개를 캐던 기억도 생생하다...(중략)...

아들이 없는 외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만딸이었고 어머니를 아들같이 사랑했다. 나는 그런 딸의 아들이었기에 더욱 귀여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한다. 아무튼 나는 외할머니나 이모들이 그렇게 나를 애지중지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다.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건만 인자하셨던

14) 천상병, 『고향이 이야기』, 『전집-시』, p.372.

그 모습이 지금도 내 가슴에 와 닿곤 한다.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부분¹⁵⁾

인용문은 천상병이 진동을 회고한 시와 수필 가운데서 하나씩 뽑은 것이다. 『고향이야기』는 진동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년시절의 한 때를 회고한 시인데, 그는 진동을 “산수가 아름답고/ 당산이 있는 수려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도 진동의 자연 경관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쓴 수필로, 진동을 “산이 푸르고 앞에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라 술회하고 있다.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진동은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이러한 경관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니 진동의 자연이 다른 곳보다 특별히 아름답다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가 어린 시절에 했던 체험 역시 평범한 것들이다. 하지만 천상병에게 진동은 어린 시절에 자란 곳이고,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어린 곳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겐 특별할 것이 없는 곳일지라도, 천상병에게는 특히 오랫동안 타향을 떠돌았던 천상병에게는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곳이 있으리라. 게다가 두 작품 모두 그의 만년에 쓰인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이 소박한 그리움에 내재된 간절함의 깊이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추량하기 어렵다.

천상병은 1953년에 환도하는 학교와 더불어 상경하여 내내 서울에서 살았다. 그가 서울을 장기간 벗어난 것은 1964년 당시 부산시장이었던 김현옥의 공보비서로 2년여를 부산에 머물던 때, 그리고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당한 고문 후유증과 폭음으로 심신이 황폐화되어 부산 형님 댁에 얼마간 누워있던 때뿐이었다. 후자의 기간은 1970년 여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

15) 천상병,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전집-산문』, pp.25-26.

정도이다. 이향은 고향으로부터의 멀어짐을 의미할 뿐 아니라 부모와의 멀어짐도 의미한다. 그래서 향수는 곧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타향살이의 신산스러움은 고향의 부모를 그리워하게 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천상병이 아무리 낙천적이고 초연한 태도로 일관했다 하더라도, 가난한 그에게 서울 생활은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런 그에게 서울 생활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지속적으로 야기했다. 그는 「오후」, 「삼청공원에서」, 「어머니 생각」, 「어머니 변주곡」, 「어머니 변주곡4」, 「어머니」 등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애끓는 사모곡을 평생에 걸쳐 여러 편 썼다.¹⁶⁾

‘어머니 가시다’라는 부제가 붙은 「삼청공원에서」¹⁷⁾는 그의 나이 38세 때 발표되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정조를 이루는 작품이다. 이 시가 수록된 잡지의 발간 시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 무렵은 동백림 사건 직전이며, 그가 안정된 직장 없이 동가식서가숙할 때였다. 그러니 그의 생활은 늘 곤궁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영면은 누구에게나 근원으로부터의 뿌리 뽑힘이라는 상실감과 비애와 고독감을 안겨 준다. 그런데다 당시 그는 말할 수 없이 고달픈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영면은 그에게 심대한 충격을 주었던 듯하다. 그는 이 시에서 자신을 “서울에서 제일 외로운 사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벚꽃이 만발한 봄 풍경 속에서 작고한 아버지와 요절한 조카를 떠올리고, “어머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라며 비탄에 잠긴다.

16) 이 외에도 고향의 산소에 묻혀 계신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 대한 그리움이 투영된 시로 다음의 작품들이 있다. 「소릉조(小陵調)-70년 추석에」, 『월간문학』, 1971. 2; 「산소의 아버지께」, 『요놈 요놈 요 이쁜 놈!』; 「아버지 제사」, 『문예중앙』, 1983. 겨울; 「봄2」, 『나 하늘로 돌아가네』, 청산, 1993.

17) 천상병, 「삼청공원에서」, 『자유공론』, 1967. 7; 『전집-시』, p.69.

다른 작품들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어머니 변주곡」¹⁸⁾에서 어린 시절 진동에서 연날리기를 했던 추억을 회고했다. 특이한 것은 시의 제목이 ‘어머니 변주곡’인 점이다. 총 5연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는 연날리기 체험이 네 개 연에 걸쳐 서술되어 있고, 어머니에 대한 서술은 마지막 연에 소략하게 처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의 중심내용은 연날리기 체험이지만, 제목과 5연을 고려할 경우 어머니에 대한 회고가 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목과 중심내용의 불일치, 시상 전개 of 비밀관성을 무릅쓰고라도 어머니를 전면 to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어머니는 그에게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어머니 변주곡4」¹⁹⁾에서는 병고를 겪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천사의 부흥”이라 했고, 「어머니 생각」²⁰⁾에서는 “그렇게도 사랑스러웠던 어머니/ 이제 언제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라며 탄식했다. 「어머니」²¹⁾에서는 환갑이 되니 어머니가 “자꾸만 자꾸만 생각납니다.”라며 살아계실 때 효도 한 번 못해 원통하다는 심정을 표현했다. 이와 같이 어머니를 향한 천상병의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고향과 영면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죽은 후 고향의 어머니 곁에 묻히고픈 염원을 수반한다. 천상병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그러한 염원을 노래한 시로 「고향사념」이 있고, 수필로는 「천가지변」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상병은 소년 시절을 보낸 진동을 내내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리고 살아서는 갈 수 없지만 죽어서만큼은 선산에 묻힌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다. 다음은 시 전문과 수필 일부이다.

18) _____, 「어머니 변주곡」, 『요놈 요놈 요 이쁜 놈!』; 『전집-시』, p.20.

19) 천상병, 「어머니 변주곡4」, 『요놈 요놈 요 이쁜 놈!』; 『전집-시』, p.203.

20) 천상병, 「어머니 생각」, 『문학사상』, 1987. 11; 『전집-시』, p.320.

21) 천상병, 「어머니」, 『요놈 요놈 요 이쁜 놈!』; 『전집-시』, p.351.

내 고향은 경남 창원군 진동면. 어린 시절 아홉 살 때 일본으로 떠나서,
지금은 서울 사는 나는 향리 소식이 소연(消然)해-

어른 되어 세 번쯤 갔다 왔지만 옛이 안 돌아옴은 절대진리니 어찌할꼬?
생각건대 칠백 리 밖 향수 뭇로 달래랴……

원하노니 향토당산에 죽어 묻히고파. 바다가 멀찌감치 보일 듯 말 듯 청명
천연에…… -『고향사념』 전문²²⁾

나의 아버지는 벌써 몇 년 전에 고향, 경상남도 창원군 진북면의 선산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터이지만, 거긴 아버지뿐 아니라 할아버지
들의 무덤이 차례로 질서 있게 자리했다.

나의 형제자매는 형이 한 사람, 그리고 누이가 둘, 이렇게 나까지 합쳐서
넷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바로 아랫자리는 앞으로 내 형의 무덤이 될 평지
요, 또 그 바로 밑자리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임에 추호의 틀림이 없는
것이다. -『천가지변(千哥之辯)』 부분²³⁾

인용문에서 선명히 드러나듯이 그는 바다가 보이는 “향토당산”에 묻히
기를 열망했고, 선조들이 묻힌 선산, 즉 “진북면/ 대티마을 뒷산”²⁴⁾을 자신
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단언했다.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고향으로 되돌
아가고 싶어했는가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고향』²⁵⁾에서 태어난 후의 고향이 진동이라 말한 다음, “원체 고향”, 다시
말해 “태어나기 전의 고향”을 생각한다. 그것은 ‘무(無)로서의 고향’이다.
이로써 판단하건대 천상병은 모든 존재는 무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한 듯
보인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무’는 인간의 까마득한 기원, 아니 그보다

22) 천상병, 『고향사념』, 『전집-시』, p.272.

23) _____, 『천가지변(千哥之辯)』, 『전집-산문』, p.55.

24) _____, 『무덤』, 『한국문학』, 1977. 7; 『전집-시』, p.166.

25) _____, 『고향』,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오상출판사, 1984; 『전집-시』, p.228.

더 오래된 태초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의 문학에서 구체적 장소성을 지니고 표상되었던 고향이 이 시에서는 불가시적인 근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그곳은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상이 존재하기 이전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에게 구경적 고향은 저 먼 하늘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세계에 대한 달관과 죽음마저 껴안은 대공정, 그리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시구에서 드러나는 천상을 향한 귀거래적 초월의식을 보여주는 「귀천(歸天)」²⁶⁾을 놓아 보면, 그가 돌아가 묻히고자 했던 진동 또는 진복은 그의 존재론적 기원이자 육신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귀천을 위한 지반이란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마산(馬山) - 심미적 도정의 출발점

천상병의 인생에서 마산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그는 8.15해방 직후 귀국하여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5년 남짓 살면서 당시 6년제로 운영되던 마산중학교에 다녔다.²⁷⁾ 재학 중 책읽기에 골몰했으며, 책 살 돈이 없어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인근 다방에서 들려오는 고전음악에 친숙하게 되었다. 또한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마산의 수려한 경치에서 시심을 길렀고, 마산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시인 김춘수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소년시절의 이 같은 환경적 풍토는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예술적 열정을 일깨웠고, 마침내 그를 시의 길로 나아가게 했

26) 천상병, 「귀천」, 『창작과 비평』, 1970. 6; 『전집-시』, p.81.

27) 그는 1945년에 마산중학교 2학년에 편입했고, 1949년 신병으로 잠시 휴학했다가 1951년에 졸업했다고 한다. 한정호,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 p.244 참조.

다. 그러므로 마산은 그의 인생에서 심미적 도정의 출발점이 되는 중대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이 ‘또 다른 고향’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시기에 썼던 작품은 어떤 특성을 지니며, 이 시기를 추억하는 텍스트에 마산이 어떤 양상으로 재현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천상병이 시의 길로 들어서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독서 체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독서병”²⁸⁾에 걸렸고, “언제나 책을 보는 게 내 유일한 일과”²⁹⁾였다고 반추할 만큼 다테야마의 중학생 시절에 책읽기에 골몰했다. 그 때문에 그의 시력은 급격하게 나빠졌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책을 불태우기까지 했다.³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의 독서열을 식히지는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문학, 역사, 지리 등 각색 분야의 책을 읽으며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귀국하여 마산에 정착한 후에도 그의 열정적 책읽기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돈이 부족해 마음껏 책을 사볼 수 없자 매일 서점에 들러 책을 읽었고, 그런 천상병에게 감동한 서점 주인은 그에게 책을 무상으로 빌려주기까지 했다.³¹⁾

누구나 성장기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낱알이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인상 깊은 체험 몇 가지를, 그것도 일정한 재구성 과정을 거친 것들을 기억할 따름이다. 천상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리라. 그는 소년시절을 회상하며 독서 체험을 유독 표나게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그런 체험밖에 하지 못했거나, 그의 기억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28) 천상병, 「그리움」, 『전집-산문』, p.48.

29) _____, 「하숙비로 술집을 찾던 학창 시절」, 『돈 포트폴리오』, 1990. 8; 『전집-산문』, p.35.

30) _____, 「오월의 신록」, 『월간문학』, 1989. 6; 『전집-시』, p.322.

31) _____, 「하숙비로 술집을 찾던 학창 시절」, 『전집-산문』, pp.36-37.

만큼 독서가 그의 소년 시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유의미한 체험이었음을 말해 주는 증표이다. 창작의 길이 처음에는 독서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천상병의 경우에도 독서가 창작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란 추론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실제로 그는 이 무렵의 “독서병이 발전하여 나를 오늘의 문인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³²⁾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점을 근거로 할 때, 독서가 성장기의 천상병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와 함께 마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소년 천상병에게 시를 쓰게 한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이는 그가 남긴 산문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는 “마산중학교 2학년에 편입한 나는 학교 교정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시를 쓰게 된 동기도 산과 바다가 있는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이다.”³³⁾라며 시에 입문한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그 당시의 마산이라면 산업화로 인한 격변을 겪기 이전이었으므로, 도시나 도시를 에워싸고 있던 자연이 원형에 보다 가까운 상태로 보존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마산이 감수성 예민한 소년 천상병의 시인적 내면성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시는 그가 마산중학교 5학년 때 쓴 작품으로서 마산의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그 까닭은
언덕에 서서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32) 천상병, 「그리움」, 『전집-산문』, p.49.

33) ———,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전집-산문』, pp.26-27.

밤새
언덕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그 까닭만은 아니다.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강물』 전문³⁴⁾

이 시는 김춘수, 유치환을 거쳐 월간지 『문예』에 추천작으로 실린 작품이다.³⁵⁾ 이 시에서 천상병은 세부 묘사를 생략하고 언덕(산), 강물, 바다 등 몇 가지 이미지를 동원하여 풍경을 거시적으로 스케치해 놓았다. 그리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공간적 이동과 언덕에서 바다를 향해 토해지는 화자의 울음을 겹쳐 놓고 있다. 이 울음은 직접적으로는 망자에 대한 산 자의 슬픔과 그리움에 화자가 투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좀더 확장하면 이별의 슬픔과 먼 것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근원적인 정서가 장례의 풍경을 매개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의 유한성과 죽음의 비애, 먼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낭만적 서정성은 습작기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성인데, 바로 이 시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4) 천상병, 『강물』, 『문예』, 1952. 1; 『전집-시』, p.42.

35) 그러나 이 작품이 천상병의 첫 번째 발표작은 아니다. 그는 『괴리』, 『공상』 두 편의 시를 대구를 거점으로 발행되던 동인지 『죽순(竹筍)』의 1949년 7월호에 추천을 받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마산에서 발행된 동인지 『처녀지』, 전시에 부산에서 발행된 동인지 『신작품』에 동인으로 참가했다. 두 동인지의 발행 상황과 천상병의 수록작에 대해서는 한정호,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 pp.249-254를 참조할 것.

그는 이 시를 창작하게 된 사정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마산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뒷산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나는 ‘사람은 죽게 마련이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을 그린 『강물』이라는 시를 썼다. 나중에 이 시를 본 국어교사였던 김춘수 시인이 감성의 뿌리가 살아있다고 칭찬해 주었다.

-『들꽃처럼 산 이순의 어린왕자』 부분³⁶⁾

운 좋게도 반에 있는 친구가 김춘수 선생님의 조카였다. 중학교 5학년 때 알게 된 그 친구를 통해 처음으로 나는 김춘수 선생이 시집 『구름과 장미』의 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 시집을 빌려서 읽었다. 그때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아 나도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부분³⁷⁾

천상병은 마산중학교 시절 산책길에서 우연히 장례식 장면을 목격한다. 그리고 생의 무상함에 대해 자각하고, 그로부터 연원한 존재론적 비애를 느끼게 된다. 바로 그러한 심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강물』이다. 그런데 첫 번째 인용문에서 그는 이 시의 창작 배경을 설명한 후 곧바로 김춘수를 언급하고 있다. 김춘수에게 시를 보였고,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김춘수에게 『구름과 장미』를 빌려 읽고 감동 받아 시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을 술회하고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인용문에서 언급한 체험은 첫 번째 인용문에서 언급한 체험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요컨대 천상병은 국어교사인 김춘수가 시인이라는

36) 천상병, 『들꽃처럼 산 이순의 어린왕자』,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전집-산문』, p.43.

37) ———,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전집-산문』, p.27.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시집을 읽으며 시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탄생한 작품이 『강물』이다. 그러므로 천상병을 시의 길로 나아가게 한 또 다른 계기에 김춘수의 영향을 포함시킬 수 있다.

고전음악을 처음 듣기 시작한 것은, 미국 군정하의 중학교 4학년 때 무렵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고교 2학년 때입니다.

그 당시 나는 구마산시장의 일본어 책방에서 공짜로 책을 수없이, 구체적으로는, 퇴교 때 매일같이 들러서 약 한 시간 가까이 읽었으며, 그러다가 책방 주인이 날 부르더니 ‘읽고 싶은 책은 집에 가져가서 읽게. 그리고 다 읽었으면 다시 그 자리로 꽂아 놓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개월 동안 책방이 나의 무료 독서실이었던 사이에, 무심코 나는 고전음악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방 옆은 다방으로서 쉴 새 없이 고전음악을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頌)브람스』 부분³⁸⁾

천상병은 마산 시절에 우연히 고전음악을 접하게 된다. 인용한 시에서 그는 서점에서 책을 읽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서점 옆 다방에서 울려나오는 고전음악을 들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때의 체험은 그의 심미적 감각에 영향을 미쳤다. 후일 그는 서울 생활을 할 때에도 다방에서 고전음악을 즐겨 들곤 했다. 그는 『송(頌)브람스』에서 브람스의 음악을, 특히 그의 제4번 교향곡을 들으며 “세상에 이렇게도 근사하고 훌륭한 음악이 있을 성 싶지 않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런 의미에서 천상병의 서정적 감각, 반복의 수사학과 음악성은 마산 시절부터 시작된 고전음악 감상 체험과 관련성이 있음직하다. 이처럼 고전음악 감상은 책읽기, 자연에 대한 관조, 김춘수의 영향 등과 더불어 그의 마산 시절의 주요한 체험 중 하나였다.

38) 천상병, 『송(頌)브람스』, 『요놈 요놈 요 이쁜 놈!』; 『전집-시』, p.181.

4. 맺음말

천상병은 『비』³⁹⁾라는 시에서 “향(鄕)이란 무엇인가”라고 자문한 후 “선조의 선조의 선조의 본향”이라고 자답했다. 연이어 “그곳은 어디란 말이냐”라고 자문을 던지고 “그건 마음의 마음이 아날는지”라고 자답했다. 그 순간 “나는 진짜가 된다”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고향은 그에게 존재의 시원, 마음의 근원, 자기정체성 확보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시원으로 부터의 추방의식, 그곳을 향한 노스텔지어, 그곳으로의 회귀의식. 천상병은 이 세 가지를 동력으로 하여 시나 수필에서 지속적으로 고향을 의미화했다.

1991년, 62세가 된 천상병은 『청춘이 그림다』에서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생각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리운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난다.”⁴⁰⁾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진동, 일본, 마산, 부산 시절을 그리워했다. 그가 영면한 때가 1993년이니까, 이 무렵은 그의 인생에서 만년에 해당된다. 이 글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하숙비로 술집을 찾던 학창 시절』, 『들꽃처럼 산 이순의 어린왕자』, 『그리움』, 『천가지변』 등 여러 편의 회고적 수필에서도 그는 성장기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쏟아냈다. 이 무렵의 천상병은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비슷한 내용의 수필을 여러 편 썼던 것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져 갔던 것 같다. 일찍이 그는 “고향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상적이게 하는 법”⁴¹⁾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수필들에서 노년에 이른 천상병의 간절

39) 천상병, 『비』, 『현대문학』, 1975. 11; 『전집-시』, p.121.

40) ———, 『청춘이 그림다』, 『녹십자』, 1991. 8; 『전집-산문』, p.158.

41) ———, 『유자 성묘』, 『국제신문』, 1963. 12. 4; 『전집-산문』, p.66.

한 향수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천가지변」에서 “아버지 바로 아랫자리는 앞으로 내 형의 무덤이 될 평지요, 또 그 바로 밑자리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임에 추호의 틀림이 없는 것이다.”라고 단언했지만, 그 같은 소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시인 천상병이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귀천(歸天)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최후의 서정시인”⁴²⁾, “전후 한국 시단에서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서정시를 썼던 시인”⁴³⁾으로 평가받는 천상병은 형이상학적 향수로부터 시작하여 삶에 대한 긍정과 소박한 순수미라는 구경에 이르기까지의 시적 편력을 통해 우리 현대시의 영토를 넓히는 데 일조한 시인이다. 그는 유년기부터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고, 그러한 존재 조건은 그를 노마드적 삶의 방식으로 내몰았다. 그는 평범한 생활인적 감각과는 다른, 이른바 예술가적 감각으로 생을 영위해 나갔다. 또한 그는 평생에 걸친 가난, 동백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겪으며 굴곡 많은 생을 살았다. 타향을 떠도는 파란 많은 삶은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살펴본 시와 수필은 그러한 그의 향수의 산물이다. 그 작품들은 오늘날 주로 도시를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보편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론적 기원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삶을 성찰케 한다.

42) 김우창, 「잃어버린 서정, 잃어버린 세계-천상병의 시에 대하여」, 『전집-시』, p.9.

43) 고봉준, 「귀소(歸巢)의 새/순수의 초상-‘새’와 ‘물’ 이미지를 중심으로」, 고영직 편, 『천상병 평론』, 답게, 2007, p.18.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천상병, 『천상병전집-시』, 평민사, 1996.
 ———, 『천상병전집-산문』, 평민사, 1996.

2. 논문 및 단행본

- 고봉준, 「귀소(歸巢)의 새/순수의 초상」, 고영직 엮음, 『천상병 평론』, 답게, 2007, pp.17-41.
 김권동, 「천상병의 「소릉조(少陵調)」 연구」, 『인문과학연구』 15,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1-22.
 김우창, 「잃어버린 서정, 잃어버린 세계」, 천상병, 『천상병전집-시』, 평민사, 1996, pp.9-24.
 김종호, 「천상병 시에 나타난 원형 심상 연구」, 『어문론집』 35, 중앙어문학회, 2006, pp.127-163.
 문재원, 「고향의 발견과 서울/지방의 (탈)구축」, 『한국문예비평연구』 3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pp.53-81.
 박남희, 「노장적 사유의 두 가지 모습」, 『한국시학연구』 7, 한국시학회, 2002, pp.141-162.
 성낙희, 「천상병 시의 도가적 특성」, 『한중인문학연구』 17, 한중인문학회, 2006, pp.87-116.
 신경림, 「천상병,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눈」,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우리교육, 2004, pp.353-365.
 유재천, 「천상병론」, 유재천 외, 『경남 문인 연구1-경남의 시인들』, 박이정, 2005, pp.167-180.
 이경철, 「한국 순수시의 서정성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07.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 2000.
 이민호, 「무위와 소멸의 시학」, 김학동 외, 『한국 전후 문제시인 연구5』, 예림기획, 2005, pp.93-126.
 전광식, 「고향에 대한 철학적 반성」, 『철학연구』 67, 대한철학회, 1998, pp.253-285.
 정한용, 「한국 현대시의 초월지향성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96.

천승세 외, 『천상병을 말하다』, 답게, 2006.

한정호,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 『지역문학의 이랑과 고랑』, 경진, 2011, pp.230-260.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편역,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출판부, 2007.

마루타 하지메, 박화리·윤상현 역, 『‘장소’론』, 심산, 2011.

렐프, 에드워드,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투안, 이-푸,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9.

Abstract

Hometown in Cheon Sangbyeong's Literature

Park, Jung-Sun

It is a well-known fact that hometown is used as a major material in Korean literature since the modern age. Hence, 'Hometown in literature' is one of significant topic in the research of Korean literature. Cheon Sangbyeong is a representative poet that he made lots of hometown-poetry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e grew up in several places. That is to say, he stayed at Himeji, Japan(1930-1933), Jindong(1933-1938), Tateyama, Japan(1939-1945), Masan(1945-1951), Busan(1951-1953). He named hometown all the places which are remembered during growth period especially. He expressed his nostalgia in writing sustainedly. Jindong, Jinbuk, and Masan is a special hometown that he missed.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 between Cheon Sangbyeong and his hometown so far.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meaning of hometown, the aspect of hometown, and hometown consciousness in Cheon Sangbyeong's literature.

Jindong is the place Cheon Sangbyeong grew up in his childhood period. Jinbuk is the place his family graveyard is located. He remembered Jindong is very beautiful and considered to be pleasant memories in his literature. Also he wrote poetry about his parents, especially his dead mother, when he stayed at Seoul since 1953. Jindong and Jinbuk is a not only origin of existence and place to rest, but also ground for back to heaven in his poetry. On the other hand, Masan is the place he grew up in his boyhood. At that time, he was infatuated with reading and classical music. And he was impressed by superb natural landscape, aroused poetic feeling and sensibility. Also he was seriously affected by Kim Chunsoo who is a poet and teacher of Korean in Masan middle school. For all these reasons, he was naturally

influenced, they led him to be a poet. Masan is meaningful for him that it is origin of esthetic journey. He reflected the sense of longing for Masan in his poetry and prose. Cheon Sangbyeong's hometown-literature works were caused by his existential conditions from his economic poverty and precarious life.

Key Word : Cheon Sangbyeong, Hometown, Origin, Growth period, Memory, Jindong, Jinbuk, Masan, Nostalgia

박정선

소속 :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소 : (641-77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5-213-3101 / 010-3521-1674

전자우편 : jsun@changwon.ac.kr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
--